

# 독일민담 ‘세 마리 개 Die drei Hunde’ (Ludwig Bechstein)<sup>1)</sup>의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의 이해

이 광 자\*

## 국문 초록

이 논문에서는 독일 민담 “세 마리 개”를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해석해 보고자 시도하였다. 이 민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 가난한 양치기가 양 세 마리를 데리고 행운을 얻기 위해 세상구경을 다닌다. 그러다 방향을 잃고 지친 좌절의 순간, 어떤 낯선 이의 출현으로 검은 세 마리 개와 자신의 양 세 마리를 교환하게 된다. 그 세 마리 개는 양식을 가져다주는 개, 모든 것을 갈기갈기 찢을 수 있는 개, 강철을 부술 수 있는 강한 개였다. 이 세 마리의 개와 함께 충만한 방랑생활을 하다가 괴물의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 검은 마차를 타고 가고 있는 검은 옷의 슬픈 공주를 만나게 된다. 갈기갈기 찢는 검은 개의 도움으로 용을 죽인 후 공주를 구원하게 된다. 이에 공주는 젊은이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기를 원하지만, 주인공은 3년간 세상구경을 한 후에 돌아올 것을 약속한다. 그 사이에 마부의 가짜 영웅행세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공주는 그 위기를 슬기롭게 견뎌낸다. 약속대로 3년 후 주인공이 궁궐로 왔지만 마부의 가짜 영웅행세로 진짜 영웅인 젊은이는 철창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된다. 그러나 이 때, 철창 감옥을 부술 수 있는 가장 강한 개를 불러 주인공은 감옥에서 탈출하게 되고, 자신이 진짜 영웅임을 입증하여 마침내 공주와 결혼하여 오랫동안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러던 중 주인공은 홀로 집에 남아 있는 불쌍한 누이와 자신의 행운

접수일 : 2010년 9월 27일 / 심사완료 : 2010년 12월 9일 / 게재확정일 : 2010년 12월 10일

1) Das große Märchenbuch(2001) Knauer Verlag pp435-439 Ludwig Bechstein은 1801년에 독일의 바이마르Weimar에서 태어나 1860년에 마인닝엔Meiningen에서 작고한 독일 작가, 도서관원, 기록전문가, 1854년에 Deutsches Märchenbuch로 독일민담집을 냈.

\*정신과 전문의 양주소망병원

을 나누기를 원한다. 이를 지켜본 세 마리 개는 이제 자신들이 더 이상 곁에 있을 필요가 없음을 말하고는 새들로 변해 공중으로 사라지게 된다는 내용이다. 이 민담의 모티브는 영웅 모티브이며, 주인공이 부정적 모성 콤플렉스를 어떻게 극복하는 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각 민담은 우리에게 각기 다른 방식으로 개성화 과정을 이야기 하면서 그 개성화 과정에서의 어려움의 극복과정과 그 목적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고 있다. 민담은 매우 담담하고 단순하지만 순수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이러한 민담을 통해 우리는 삶의 지혜라는 매우 귀중한 보물을 얻고 있다고 본다.

**중심 단어 :** 민담 · 분석심리학 · 세 마리 개 · 개성화 과정.

## 들어가는 말

민담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무심히 즐겨 들어오던 많은 이야기들이다. 재미있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때론 무섭기도 하면서 어린이에게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감동을 주어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 그러한 민담을 대할 때, 우리는 뭔가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막연한 경외감, 가슴에서 뭔가 뭉클하게 작용하는 것들, ‘아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보다!’ 혹은 ‘모두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구나!’같은 것을 느끼게 된다.

민담은 신화나 그 밖의 원시적 심성의 표현과 함께 인간 무의식의 심층의 여러 심적 과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sup>2)</sup>고 한다. 그래서 민담의 이러한 측면을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을 폰 프란츠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 용의 개념으로 볼 때 모든 원형은 본질적으로 미지의 정신 요소로서 그 내용을 지적인 용어로 옮길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우리 자신의 심리적인 경험의 바탕에서 그리고 원형적 이미지들이 걸려 있는 전체적인 연상의 망을 조명해 보는 비교 연구들로부터 그것을 정의할 수 있고, 민담은 그 자체가 가장 훌륭한 설명이다. 그것의 의미는 이야기의 실로 연결된 전체적인 모티브 안에 다 포함되어있다.<sup>3)</sup> 이러한 민담 해석이 가지는 제한점과 그 의미를 염두에 두면서 하나의 민담을 선택하여 그

2) 이부영(2000) : 《한국민담의 심층분석》, 집문당, 서울, p20.

3) Marie-Luise von Franz(1996) : *The Interpretation of Fairy tales*, Shambhala, p1.

것을 분석심리학적인 관점을 빌어 개인적인 해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개인적인 심리적 경험에 필요한 모티브의 소재로서, 우선 꿈에 종종 나타나는 개의 상징적 의미를 개와 관련된 민담을 통해 이해해 보고자 하였다. 그래서 찾은 민담이 독일민담 ‘세 마리 개’였다. 이것은 개와 관련된 민담이지만 이 민담의 중요한 모티브는 한 젊은 양치기가 주인공인 ‘영웅의 괴물퇴치’였다. 남자가 주인공인 민담을 여성인 저자가 어떤 태도로 해석해 나가야 할 지 처음에는 망설여졌지만, 용의 자기실현으로의 개성화 과정은 전체성을 위한 길이고 이는 여성 속의 아니무스의 과제 일 수도 있기에 경외감을 가지고 담담하게 이 민담이 주는 가르침을 알아가려 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에리히 노이만이 분석심리학적 접근에서의 남성과 여성이라는 다른 성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있으니 각주를 참조하면 될 것 같다.<sup>4)5)</sup> 이제 이 민담을 유희와 상징들의 확충 및 여러 문헌들의 참조를 통해 조심스럽게 분석심리학적으로 접근하여 해석해 보려 한다. 우선 이러한 모티브를 가진 유희들을 찾는 과정에서 집단 무의식의 보편적인 원형적인 소재가 시공간을 초월해 세계 곳곳에서 발견됨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비슷한 상황을 해결하는 대처 방식은 그곳의 문화적 요인이나 생활 방식에 따라 다소 상이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 민담에 대한 심리학적해석에서는 다른 유희와의 비교, 이 민담에서의 상징들의 확충 그리고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의 개성화 과정에 중점을 두며 다루었다.

이제 독일민담 ‘세 마리 개’를 소개한 후 그 내용을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4) Erich Neumann(2003) : *Die Grosse Mutter Die Weiblichen Gestaltung des Unterbewusstens* Patmos, p39 심리학적으로 각 인간적인 구조에는 양성체적으로 hermaphroditisch 나타내어지는 반대 성의 내부의 심급審給들 Instanzen이 존재함으로 인해 바로 그 반대 성의 어떤 내부적인 “경험”이 가능해진다. 여성이 남성의 무의식적인 내부적인 경험을 소유하고 있듯이, 남성도 우선 여성의 무의식적인 내부의 경험을 소유하고 있다.

5) Erich Neumann(1995) : *The Origins and History of Consciousness* Bollingen Series XLII Princeton University Press, p42 남성성과 여성성의 발달의 대조는 나중에 고려해야 하지만, 역설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한 가지는 곧 기본적인 법칙으로 정립될 수 있다 : 여성에서조차도 의식은 남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의식-빛-낮”과 “무의식-어둠-밤”의 상관관계는 성에 관계없이 사실이고, 이것은 정신과 본능의 대극이 남성과 여성에서 다른 기초위에 조직되어졌다는 사실에 의해 변하지 않는다. 무의식이 남성에서 여성적이듯이 의식은 여성에서조차도 남성적이다. 에리히 노이만의 이러한 가정은 논란의 여지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살펴보기로 하자.

## 민담 ‘세 마리 개’의 소개

### 1. 세 마리 개

한 양치기가 임종을 맞아 아들과 딸에게 유산으로 세 마리 양과 조그마한 집 한 채를 남기면서, 서로 싸우지 말고 두 가지를 잘 나누어 가질 것을 부탁했다. 양치기가 죽자, 아들은 누이에게 양들과 집, 둘 중 어느 것을 택할 지를 물었다. 누이가 집을 선택하자, 양치기 아들은 “그럼 나는 양들을 데리고 넓은 세상으로 나갈 것이다. 어떤 이는 그 곳에서 자신의 행운을 발견하기도 하지. 나는 행운아야.”라고 말하고는 자신의 유산인 양 세 마리를 데리고 길을 떠났다. 그러나 행운은 오랫동안 그에게 오지 않았다. 한 번은 불확실함 속에 어디로 가야 할 지 모른 채, 사거리에 짜증스럽게 앉아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 어떤 한 남자가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는 세 마리의 검은 개를 가지고 있었고, 그 중에 한 마리 개는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커보였다. “아, 젊은이!” 그 남자가 말했다. “당신은 세 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네 그려. 당신이 그 양들을 내게 주면 나는 당신에게 나의 세 마리 개를 주겠소.” 이 젊은이는 자신의 슬픈 처지에도 불구하고 웃음이 나왔다. 그가 묻기를 “당신의 개로 내가 뭘 할 수 있소? 나의 양들을 스스로 먹이를 먹지만, 개들은 내가 먹이를 먹어야 되지 않소.” 낯선 남자는 대답하기를 “이 개들은 특별한 종류의 개들이요. 이 개들은 스스로 먹이를 구해 먹고, 당신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거요. 작은 개는 ‘음식을 가져와라 Bring Speisen’라고 불리고, 두 번째 개는 ‘갈기갈기 찢어라 Zerreiβ'n’라 불리고, 가장 크고 힘이 센 것은 ‘강철을 부셔라 Brich Stahl und Eisen’라고 하오.” 양치기는 마침내 핏에 빠져 자신의 양들을 내어주었다. 그는 개들을 시험해 보기 위하여 “음식을 가져와라”를 불렀다. 그러자 곧바로 한 마리 개가 어딘가를 가더니 훌륭한 음식이 가득 찬 커다란 바구니를 물고 돌아왔다. 이제야 양치기는 더 이상 후회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그것은 좋은 일이 되어, 양치기는 오랫동안 이리 저리 유랑을 계속하였다.

그런데 한 번은 어떤 마차와 마주치게 되었다. 두 마리의 말이 물고 있는 그 마차는, 까만 덮개로 씌워져 있었고, 마부도 역시 검은 옷을 입고 있었다. 마차

안에는 검은 옷을 입은 매우 아름다운 소녀가 비통하게 울고 앉아 있었다. 말들은 고개를 축 떨 군 채, 천천히 슬프게 가고 있었다. “마부, 도대체 이게 뭐가요?” 하면서 양치기가 물었으나 마부는 대답을 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마부가 설명을 해 줄 때까지 계속 물었다. 마침내 마부가 설명하기를 “이 근처에 커다란 한 마리의 용이 살고 있는데, 그 용에게 사람들은 매년 한 처녀를 바쳐야만 하오. 그러면 그 용은 그 처녀를 하나도 남김없이 집어삼켜버리오. 그러면 용이 더 이상 그 나라를 망치지 않는다고요. 희생제물은 14살 먹은 처녀들 중에 한 명을 매 년 제비뽑기로 결정하는데, 이번에는 공주가 당첨되었다오. 그래서 왕과 온 나라가 슬픈 고민에 잠겨 있다고요. 용은 자신의 희생제물을 잡아먹을 거요.” 양치기는 아름다운 공주에 대해 동정심을 느끼면서 계속 마차를 따라갔다. 그 마차는 마침내 높은 산 앞에서 멈췄다. 그 처녀는 마차에서 내려서 천천히 그 끔직한 운명과 대면하기 위해 앞으로 걸어 나갔다. 마부는 낯선 남자가 계속 따라 오는 것을 보고 따라오지 못하도록 경고를 했지만 양치기는 계속 따라왔다.

산중턱 쪽 올라왔을 때, 산꼭대기에서 끔직한 괴물이 내려왔다. 그 괴물은 온 몸이 비늘 같은 것으로 덮여있고, 날개가 달려 있고, 무시무시한 발톱과 발을 가지고 있었다. 그 괴물의 목구멍에서는 작열하는 불길이 활활 타 오르고 있었고, 그 괴물은 곧 자신의 먹이 감을 덮치려고 하고 있었다. 그러자 곧 양치기는 “갈기갈기 찢어라”라 불리는 개를 불렀다. 그러자 두 번째 개는 용을 덮치고, 괴물의 말랑한 부위를 짹 물어서 결국 괴물을 쓰러뜨렸다. 마침내 그 괴물은 독기를 뱉어내며 숨을 거두게 되었다. 그 개는 그 용을 완전히 먹어치웠다. 그래서 몇 개의 이빨만이 남았는데 양치기는 그 이빨을 몸에 지녔다. 기쁘고 놀라서 공주는 기절을 하였다. 양치기가 기절한 공주를 깨웠다. 그 공주는 그 구원자의 발밑에 꿇어 앉아, 그를 충분히 보답해 줄 자신의 아버지한테 같이 가자고 간절히 부탁하였다. 그 젊은이는 자신은 세상을 더 돌아보고, 3년 후에 다시 오겠다고 대답하고 결심을 바꾸려 하지 않았다. 공주는 다시 마차에 올라탔고, 양치기는 더 넓은 세상을 향해갔다. 그러자 마부는 그만 나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물살이 거센 다리 위를 지나가게 되었을 때, 마부는 그 곳에 마차를 멈춰 세우고 뒤돌아보며 공주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구원자는 이제 떠났습니다. 그는 당신의 감사를 바라지 않았소. 불쌍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아버지에게 내가 용을 죽었다고 말해주시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나는 당신을 저 거센 물살 속으로 집어 던질 것이요. 그러면 아무도 그것에 대해 묻지 않을 것이고, 모든 사람들은 용이 당신을 집어삼켰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공주는 통곡하며 간절히 부탁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공주는 마부가 시키는 대로 마부가 자신을 구해준 자라는 것을 말하고 그 사실에 대해 절대 배신하지 않기로 맹세를 해야만 했다. 그래서 다시 나라로 돌아왔고, 온 나라는 이에 대한 열광으로 모두 제 정신이 아니었다. 탑 꼭대기의 검은 깃발들은 모두 걷어 들어지고, 그곳에는 알록달록한 깃발들이 꽂혀졌다. 왕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공주와 거짓 구원자를 껴안았다. “너는 내 아이뿐만 아니라 이 나라 전체를 재앙으로부터 구해냈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보답을 할 것이며, 내 딸이 너의 부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공주가 아직은 너무 어려서 다음해가 되어서야 결혼식을 올리게 될 것이다”라고 왕이 말하였다. 마부는 그것에 대해 감사했다. 그는 이제 화려하게 옷을 차려 입은 귀족이 되어 그에 따른 모든 예의범절을 배우게 되었다. 그러나 공주는 깜짝 놀라 비통하게 울었으나 감히 맹세를 깨뜨릴 엄두는 내지 못하였다. 일년이 지나자, 기한을 일 년 더 연장시키는 것 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이 기한도 다 되어 공주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일 년만 더 연기해 줄 것을 간청하였다. 왜냐하면 진짜 구원자의 약속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왕은 공주의 간청을 거절할 수 없어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세 번째 해를 더 연기하는 것을 들어주기로 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그리고 이제 결혼식 날짜가 정해졌고, 탑 꼭대기에는 알록달록한 깃발들이 바람에 날리고 온 국민들이 그것을 즐겨워했다.

그러나 바로 그 날, 세 마리의 개를 가진 어떤 낯선 사람이 이 나라로 들어왔다. 그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즐겨워하는지를 물었고, 공주가 그 끔직한 용을 물리친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 낯선 이는 공주와 결혼할 사람이 다른 사람의 깃털로 자신을 장식하는 사기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비병은 그를 잡아 강철 문으로 된 좁은 감옥에 던져버렸다. 이제 그는 감옥의 밀짚더미 위에 누워 자신의 슬픈 운명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갑자기 밖에서 개 우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러자 그에게 번뜩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강철을 부셔라”라 불리는 개를 목이 터져라 큰 목소리로 불러댔다.

그러자 바로, 햇빛이 희미하게 들어오는 감옥의 격자창에 자신의 가장 큰 개의 앞발이 보였다. 감옥 창살이 부서지고, 개가 감옥으로 뛰어 들어와 주인을 묶은 쇠사슬을 물어 뜯어버렸다. 그리고 다시 밖으로 뛰어나오자 주인은 개의 뒤를 따랐다. 이제 그는 다시 자유의 몸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대가를 받아 가는 것에 대한 생각에 몹시 괴로웠다. 그는 “음식을 가져와라” 이름의 개를 불렀다. 곧 그 개는 수건 한가득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 하얀 수건에는 왕관이 수놓아져 있었다.

왕이 그의 수행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개가 나타나 신부인 공주의 손을 핥았다. 공주는 깜짝 놀랐으나 곧바로 그 개를 알아보고 반가워했다. 그래서 그 개에게 친히 포도주와 빵을 보내주었다. 이제 왕은 그 모든 비밀을 믿게 되었고, 왕은 개를 따라 갈 사신을 보내어 낯선 젊은이를 데리고 와 큰 홀로 인도하였다. 전에 마부였던 이는 그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무릎을 꿇고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간청하였다. 공주는 이방인이 자신의 구원자임을 곧바로 알아볼 수 있었고,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용의 이빨로 그가 공주의 구원자임을 증명할 수도 있었다. 마부는 깊은 지하실에 던져졌고, 양치기가 공주의 옆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공주는 결혼식을 연기하지 않았다.

오랫동안 이 젊은 부부는 기쁘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양치기였던 이 젊은이는 불쌍한 누이가 생각났고, 행운을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여동생을 데려 오기 위해 마차를 보냈고 오래 걸리지 않아 여동생은 오빠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 그러자 세 마리 개 중 한 마리가 말을 하기 시작했다. “이제 우리의 시간은 끝났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다. 우리는 단지 네가 이런 행운 속에서도 네가 여동생을 잊고 있지 않는지를 보기 위해 지금까지 머물렀을 뿐이다.”라고 말하고는 세 마리의 개는 세 마리의 새로 변해 공중으로 사라졌다.

## 2. 세 마리 개에서 나타난 ‘괴물퇴치’ 모티브와 유화 비교

이 민담에서처럼 ‘괴물퇴치’ 해결방식에 중요한 수단으로 개가 등장하는 유사한 민담을 몇 개 소개해 본다. 우선 가까운 나라 중국에서의 유화로 수신기에 ‘구렁이를 퇴치한 소녀’에 대한 이야기<sup>6)</sup>가 있다. 그 이야기에 도 괴물인 구렁

이와 그 구렁이를 죽이는 개가 등장한다. 이야기의 줄거리는 동네근처 험준한 산의 서쪽 습지대에 구렁이가 살고 있었는데 구렁이로 인한 마을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 매해 12~13세의 동녀를 괴물에게 받쳐야 했다. 9년 동안 9명의 처녀가 받쳐졌고 10년째 되던 해 괴물에게 받칠 처녀가 잘 구해지지 않자, 그로 인해 딸을 가진 부모들은 전전긍긍하던 차에 부모님과 6자매들 중의 막내인 ‘이기’라는 소녀가 부모님께 도움이 되고자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모 몰래 자신을 공물로 자청하게 된다. 그리하여 이 소녀는 자신에게 뱀을 잘 무는 개와 검을 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제물이 받쳐지는 날, 이 소녀는 지혜롭게 떡으로 괴물을 유인하면서 개와 검으로 구렁이를 퇴치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져 후에 이 소녀는 왕비가 되고 이로 인해 부모와 언니들에게도 좋은 일이 생기게 된다는 유희이다. 그리고 몽골에도 ‘보호하르 개와 보호하르 새’<sup>7)</sup>라는 독특하고 재미있는 영웅담에 관한 설화가 있다. 주인공 말치기는 왕비의 모함에 아무도 당해 낼 수 없는 보호하르<sup>8)</sup> 개와 보호하르 새를 잡으러 길을 떠난다. 말치기 주인공이 길을 가는 도중에 구렁이의 희생제물이 될 향가리드<sup>9)</sup>의 세 딸을 만나 사정 이야기를 듣고 세 딸을 구출하기 위해 구렁이를 죽인다. 향가리드는 자신의 세 딸을 구해 준 보은으로 주인공이 보호하르 개와 보호하르 새를 잡는 것을 도와주고, 보호하르 개와 보호하르 새를 잡은 주인공은 왕과 왕비가 있는 궁궐로 돌아오게 된다. 사람을 잡아먹는 보호하르 개와 보호하르 새가 오는 것을 알고 왕은 먼저 도망을 갔고, 말치기 주인공을 궁지에 몰았던 왕비는 보호하르 개와 보호하르 새에 의해 죽게 된다. 왕이 된 주인공은 보호하르 개와 보호하르 새를 자신과 그 나라의 중요한 수호자의 역할을 하게 하는 설화이다. 여기서 개와 새는 처음에는 주인공과 대적해야 하는 괴물도 등장했다가 향가리드의 보은에 의한 도움으로 주인공에게 잡혀 주인공의 적을 처치하고 주인공의 주변을 지키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중적인 모습이다. 개와 새의 역할의 변환이 특징적이다. 그리고 한국적 영웅원형의 전개로 소개되어진

6) 간보(전병구 역)(1997) : 《수신기》, 자유문고, 서울, pp429-431.

7) 데.체렌소드눔(이안나 역)(2007) : 《몽골의 설화》, 문학과 지성사, 서울, pp190-194

8) ‘보호하르’는 크고 겁다는 뜻이 있다.

9) ‘새 중의 왕’으로 인도의 ‘가루다’나 중국의 ‘봉황’과 유사한 신화상의 새, 향가리드는 새의 날개와 인간의 몸을 하고 뱀을 잡아먹는 새의 왕이며 태양의 새이다. 이 새는 인도의 지고의 신 비쉬누의 탈것인 ‘가루다’라는 새에 기원을 가지고 있다. 향가리드가 뱀을 쥐고 있는 것은 천상의 힘이 지상의 힘을 제압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네장터 설화’<sup>10)</sup>는 한국민담의 심층분석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어머니가 없고 장님인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효녀인 순이가 주인공인 설화이다. 어느 날 갑자기 부엌에 나타난 두꺼비에게 매일 남은 음식찌꺼기를 주면서 순이와 두꺼비는 서로 친구가 되고, 이 두꺼비는 큰 강아지만큼 자라게 된다. 그 무렵, 장터 마을에 지네로 인한 인명피해가 있자 이를 막기 위해 이 동네에서는 당집을 짓고 다른 동네에서 돈으로 처녀를 사와 지네에게 바치기로 했다. 이 소문을 들은 순이는 자신의 몸을 팔아 아버지를 편하게 하고자 하였다. 이에 두꺼비가 주인공에 대한 보은으로 지네와 싸워서 주인공의 목숨을 구하게 되고 또한 그 마을이 다시 평온해진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한국의 ‘지하국대적퇴치설화’<sup>11)</sup>도 괴물퇴치담의 다른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고, 가짜영웅이 진짜영웅을 곤란에 빠뜨리다 나중에 사실이 밝혀지게 되는 부분은 세 마리 개에서의 마부와 주인공의 경우와 유사하게 그려지고 있다. 마지막 유향 비교의 대상으로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페르세우스 영웅’에 대해 다른 유향과 도표상의 간단한 비교만을 제시하였다. 이 밖에도 곤궁에 처한 공주를 구출해 내는 영웅들의 이야기들은 시공간을 초월해 세계각지에서 많이 분포되어 있다. 이는 우리가 항상 대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로, 남성속의 아니마와의 문제이기도 하고, 부정적 모성콤플렉스의 극복의 문제인데, 이를 우리는 민담을 통해 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우리 마음속의 영웅을 일깨우기 위함일 것이다. 위에 소개된 ‘괴물퇴치’영웅담의 유향들을 간략하게 알아보기 쉽게 도표화하였다(표 1).

### 3. 민담 ‘세 마리 개’에 대한 분석심리학적 해석

#### 1) 아버지의 죽음, 오누이에게 남겨진 오두막집과 세 마리 양

이 민담은 주인공의 아버지가 병들어 죽게 되는 상황에서 시작된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아버지는 흔히 전통적인 남성적인 행태를 의미하는데 그 부인의 결여는 전통적 남성적 태도에 대한 감정기능이 결여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12)</sup>고 한다. 병든 아버지의 죽음은 상징적으로 집단적 정신을 대변하는 아버지가 병이 들어 죽음으로써 아들을 통한 새로운 집단적 정신이 태

10) 이부영(2000) : 《한국민담의 심층분석》, 집문당, 서울, pp88-107.

11) 손진태(1954) : 《한국민족설화의 연구》, 을유문화사, 서울, pp106-133 참조.

12) 이부영(2000) : 《한국민담의 심층분석》, 집문당, 서울, p95.

**Table 1.** ‘괴물퇴치’ 모티브의 유화 비교

민담의 제목	주인공	괴물	희생제물	괴물퇴치법	결과
세 마리 개 (독일)	양치기 청년	용	공주	사나운 개	용의 퇴치, 공주와 결혼
지네장터설화 (한국)	‘순이’라는 효녀	지네	순이	두꺼비의 투쟁	지네와 두꺼비의 죽음, 마을의 평화
구렁이 퇴치 소녀(중국)	‘이기’라는 소녀	구렁이	‘이기’라는 소녀	개와 검	구렁이 퇴치, 왕과의 결혼
보호하르 개와 보호하르 새 (몽골)	말치기 청년	구렁이와 왕비	항가리드의 세 딸, 주인공 자신	장대, 보호하르 개와 보호하르 새	구렁이와 왕비 퇴치, 왕이 됨
지하국대적 퇴치설화 (한국)	무신	‘아귀’라는 도적	세 공주	변신술, 도적의 약점	막내공주와 결혼
페르세우스 신화(그리스)	페르세우스	바다괴물	안드로메다	스스로 대적함	안드로메다와 결혼

어나야 함을 알리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민담에서 주인공의 어머니의 부재는 앞으로 전개 될 괴물의 등장과 연관되어짐을 가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의식에서의 이러한 모성적 측면의 억압으로 인해 이러한 면들이 무의식에서 의식의 무관심한 태도에 대하여 적대적이고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됨을 예상할 수 있다. 민담에서 아버지가 남긴 집과 세 마리 양을 유언에 따라 오누이와 나누어 가지게 된다. 누이가 집을 선택하자 주인공은 세 마리의 양을 데리고 집을 떠나게 된다. 주인공은 자신에게 행운이 올 거라는 희망을 안고 세상을 알기 위해 길을 떠나게 된다. 주인공은 길을 떠나고 남겨진 오누이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야기가 전개되는 동안 누이의 등장은 시작과 마지막에만 나타나게 되는데, 마지막에 주인공이 이 누이를 재등장시키는 순간 커다란 변환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오누이가 같이 등장하는 민담으로 한국의 ‘해와 달’, 유럽의 ‘헨젤과 그레텔’이라는 민담이 있다. 이러한 민담에는 어두운 모성의 파괴적인 면이 잘 드러나고 있다. 이 두 민담에서는 오누이는 함께 움직이며 모성의 파괴적인 면을 같이 극복해 나가는 모습이다. 그러나 이 민담에서는 누이는 처음과 끝에만 등장을 하는데, 처음 누이의 역할은 집을 선택함으로써 주인공을 양 세 마리와 함께 방랑의 길로 내몰게 된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그러한 누이를 저버리지 않고 주인공이 그 누이와 행복을 나누자 세 마리 개는 세 마리의 새들의 변환을 하면서 공중으로 사

라지게 된다. 과연 이 민담에서 누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처음의 누이는 아버지가 남긴 작은 집에 머무르는 수동적인 면을 보인다. 하지만 이는 주인공이 개성화과정을 겪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민담의 심층분석에서 남매의 쌍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 심리학적으로 이해하자면, 남매상은 신의 쌍(Göttliche Syzygie)과 같이 정신적 전체성의 한 표현이다. 그러나 남매는 아직 원초적 본능적 의존관계를 지닌 상태이므로 보다 통합된 전체를 위해서는 일단 남매의 혈연적 결속은 무너져야 한다<sup>13)</sup>고 한다. 그래서 이러한 남매의 분리에서 이 민담의 주인공이 부정적인 모성측면을 극복하고 아나마 구출에 성공하고, 다시 누이를 찾는 주인공의 모습을 전일순一의 결합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이제 이 민담의 출발점에서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세 마리 양을 심리학적 의미로 조명을 해 보면, 세 마리 양을 현재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의식세계의 전부로 가정하면, 이는 주인공이 의식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아의 정신적 에너지의 측면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세 마리의 양에서처럼 이 민담에서도 3이라는 숫자가 자주 나타난다. 이 3이란 숫자는 다수, 창조력, 성장, 이원성을 극복한 전진운동, 3은 2가 갈라놓은 것을 복원시키는 통합의 의미를 나타낸다. 3은 ‘모든’이라는 말이 붙을 수 있는 최초의 숫자이기도 하며, ‘처음과 중간과 끝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전체를 나타내는 숫자이다.’ 그리고 세 번이라는 것은 중첩효과와 권위를 나타내며 한 번이나 두 번은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있지만 세 번이 되면 확실성과 강한 힘을 보인다는 것이다<sup>14)</sup> 위에 소개한 민담 ‘세 마리 개’에서도, 양 세 마리, 개 세 마리, 3년간의 세상 구경 등 3이란 숫자가 이 민담에서도 자주 등장함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양은 대체로 무지몽매하며 맹목적인 추종, 무력함을 나타내는 것을 이야기 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양은 은둔생활의 상징이며 십이지의 여덟 번째 동물이기도 하다. 그리스도교에서 양은 목자인 예수에게 인도되는 사람들과 신앙이 독실한 자, 12사도를 나타는 것으로<sup>15)</sup>되어있

13) 이부영(2000) : 《한국민담의 심층분석》, 집문당, 서울, p231.

14) 진 쿠퍼(이윤기 역)(2003) : 그림으로 보는 세계문화상징사전, 까치출판사, 서울, pp 234-237.

다. 이는 뒤에 맞바꾸게 될 검은 개들의 공격적인 면과는 달리 하얀 색의 양들은 온순하지만 고집스럽고 맹목적인 것으로 많이 투사되어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주인공의 의식에서의 자아의 태도는 양들의 속성과도 같은 온순하고 수동적이고 맹목적인 고집스런 양들의 태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식의 태도는 세상 방랑의 길에서 한계상황에 다다르게 한다. 여기서 주인공은 좌절과 실망으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상실하게 된다. 이 순간, 주인공에게 어디선가에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게 된다.

## 2) 세 마리 검은 개를 가진 낫선 이와의 만남

주人公이 좌절과 실망으로 앞으로 나갈 방향의 상실했을 때, 세 마리의 검은 개를 가진 낫선 이가 출현하게 된다. 이 낫선 이는 낙담한 주인공에게 무언가를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로 전체적인 맥락에서 주인공에게 문제 해결에 필요한 중요한 열쇠를 건네주는 역할을 하는 자이다. 흔히 민담의 이러한 부분에서는 주인공이 난관을 극복하도록 노현자의 역할을 하는 자가 많이 등장한다. 용의 말에 의하면 민담에서 가이스트 Geist의 유형이 노인으로 나타나는 빈도는 꿈에서 나타나는 빈도와 비슷하다. 노인은 주인공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철저한 숙고나 온 좋게 떠 오른 생각들, 즉 ‘정신적’기능이나 또는 정신 내적 자동장치가 주인공을 구할 수 있을 경우 언제나 등장한다. 그러나 주인공이 내적, 외적인 이유로 해서 이러한 일을 스스로 완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결핍을 보상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식이 의인화된 사고의 형태로, 바로 조언과 도움을 주는 노인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sup>15)</sup> 비록 낫선 이가 노인의 모습인지 아닌지는 이 민담에서는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낫선 이가 건네는 검은 색의 세 마리 개를 보면 그는 무의식과 관계하는 중요한 인물로 추정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낫선 이는 주인공에게 겉으로 보기에 상반되고 대극적인 특성을 보이는 흰 양과 검은 개를 서로 맞교환할 것을 권유한다. 흰색 밝은 색 등은 의식화된 면을 상징한다면, 검은 색은 무의식의 어두운 측면, 아직 분화되지 않은 원초적인 물질의 색깔이기도 하다. 그리고 양이나 개처럼 민담이나 꿈에서 보이는 동물 형태로 나타나는 심혼의 상징적

15) 진 쿠퍼(이윤기 역)(2003) : 앞의 책 p315.

16) 칼 구스타브 융(한국융연구원 C.G. Jung 저작 번역위원회 역)(2002) : 융 기본 저작집 2권 <원형과 무의식>, 서울, p288.

의미를 용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원형을 기술하는데 동물형태의 특수한 출현 방식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충분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여러 신과 귀령들이 동물의 형상을 취하는 경우와 같은 심리학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동물의 형상은 그것으로 표현되는 내용과 기능이 아직 인간 외부의 영역, 즉 인간 의식 너머에 있음을 가리킨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귀령적, 초인적인 것, 다른 한편으로는 동물적, 인간이하적인 것에 관여한다.<sup>17)</sup> 그러므로 이러한 동물 형태의 검은 세 마리의 개는 아직 주인공의 의식 너머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나, 주인공의 개성화 과정에서 우리는 세 마리 개의 상징적인 속성이 주인공의 의식으로 동화되어가는 과정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온순하고 스스로 먹이를 찾아 먹는 양들과는 대조적인 사나워 보이는 세 마리의 검은 개를 양들과 바꾸자는 제안에 젊은이는 자신이 이 개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이 제안을 거부한다. 그러나 낯선 이의 역할은 의식과 무의식의 중간 매개자로서 의식의 한계상황에서 무의식의 것을 받아들여 주인공이 앞으로 처할 상황에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래서 낯선 이는 이 양치기에게 이 특별한 개들의 속성을 설명해 주며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를 설득한다. 즉 스스로 먹이를 구해서 주인에게 먹을 양식을 제공하는 개, 어떤 대상을 물어뜯어 갈기갈기 찢어버릴 수 있는 속성의 개, 어떤 강한 강철이라도 부셔버릴 수 있는 강인한 개를 보이며 이 세 마리의 개를 온순한 양들과 바꾸기를 권한다. 결국 주인공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고, 낯선 이는 온순한 양들을 이끌고 의식 저편으로 갔을 것이다. 이제 젊은이는 세 마리의 개들과 세상여행을 함께 하게 된다.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편견과 부담으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주인공의 모습은 우리의 의식의 태도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낯선 것을 수용하는 의식의 태도의 변화는 의식세계를 더 풍요롭게 하면서 주인공에게 활력을 주어 다시 길을 가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분석심리학적 면에서, 주인공이 지금까지 억압해 오던 그림자의 측면으로 이해될 수 있는 개의 충성스러움과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강인한 개의 속성이 주인공의 의식으로 어떻게 통합되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선 검은 개들의 상징적 의미를 알아보기로 하자. 검은 색은 하얀색의 대극적인 색깔이다. 의식화와 무의

17) 칼 구스타브 융(한국융연구원 C.G. Jung 저작 번역위원회 역)(2002) : 앞의 책 p304.

식성을 나타내는 것으로도 이해되어지는 부분이기도 하다. 연금술에서의 시작 단계인 니그레도nigredo를 연상시키는 것으로 무의식세계로의 침잠과 시작을 알리는 원초적인 물질의 색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의식의 빛의 세계와는 대조적으로 미분화, 어둠과 관련된 무의식의 세계와 연관되는 색이다. 개의 상징적 의미를 폰 프란츠의 민담해석에서 다음과 같이 잘 이야기하고 있어 인용해 본다 : 고대에서는 개는 영생의 보증인으로서(예를 들어, 하데스의 개 케르베르스Cerberus(머리가 세 개 달림)와 고대 로마인의 무덤에 있는 개들의 이미지), 이집트 신화에서는 자칼 머리를 한 아누비스Anubis가 지하세계의 안내자이고, 또한 오시리스의 흩어진 신체부위를 다 모았다고 전해진다. 미라화 mummification하는 의식을 수행하는 신부는 아비누스형상으로 의상을 갖추어 입었다고 한다. 그리스에서는, 개는 의신醫神인 아스클레피오스 Asklepios에 속한다. 왜냐하면 개는 풀을 먹어 스스로 치료하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개는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체로 매우 긍정적이다; 개는 인간에게 친구이자 수호자이자 안내자이다. 그러나 이전에는 개는 광기狂氣와 같은 정신착란과 같은 것을 전달하고 질병과 페스트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다. 모든 동물들 중에 개는 인간에게 가장 완전하게 적응을 하였고, 인간의 기분에 가장 잘 반응을 하고, 인간을 따라하고, 인간이 개에게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지를 이해한다. 개는 관계의 정수이다.<sup>18)</sup> 개는 충성, 경계, 고귀를 뜻하고, 현세와 내세의 경계를 지키는 수문장, 통로의 수호자, 저승세계의 수호자, 죽은 자의 수행인, 영혼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자이다. 개는 전령신傳令神과 파괴의 신을 연결시켜주며, 아누비스, 헤르메스/메르큐리우스의 부수물이다.<sup>19)</sup> 우리나라에서도 의로운 개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다양하게 전승되고 최래옥 선생은 개에 대한 이야기 유형을 14가지로 나누고 있다. 들불을 꺼서 주인을 구하는 유형, 호랑이 등 다른 맹수를 물리쳐서 주인을 구하는 유형, 둔갑해서 주인을 해치려는 동물이나 귀신을 물리치고 주인을 구한 유형, 독약을 주인이 먹거나 만지려고 할 때 이를 막아서 주인을 구하는 유형, 글이나 옷자락을 물고 와 주인의 죽음을 알리는 유형, 주인이 위험에 빠진 것을 지

18) Marie-Luise von Franz(1996) : *The Interpretation of Fairy tales*, Shambhala, pp 130-131.

19) 진 쿠퍼(이윤기 역)(2003) : *그림으로 보는 세계문화상징사전*, 까치출판사, 서울, pp102-105.

키고 사람에게 알려져 살아날 수 있게 하는 유형, 길러준 주인이 죽자 따라 죽는 유형, 주인이 없는 사이에 어미개가 주인의 아이에게 젖을 먹여 살리는 유형, 중요한 문서를 먼 곳에 알리는 유형, 죽으며 발복할 명단을 찾아주는 유형, 산길을 내어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유형 또는 산에서 길을 잃었는데 찾아가게 하는 유형, 발을 갈아주고 죽었는데, 개무덤에서 나무가 자라 보화를 얻는 유형, 눈먼 주인의 길을 인도하여 동정을 사는 유형<sup>20)</sup> 등으로 개에 대한 이야기를 분류하였다. 이러한 개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분류에서 실질적인 개의 속성을 잘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것은 우리가 동물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을 때, 그 동물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이로움일 것이다. 독일미신사전에도 개에 대한 독일 사람들의 개에 대한 미신적인 행동을 매우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다 : 개는 가장 오래된 가축으로 다른 어떤 동물보다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는 미신적으로 더 많은 두려움을 갖고 보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것은 개의 예민한 후각과 예민한 직감력, 예민한 반응으로 개가 미래의 것들을 먼저 예측하여 보여준다고 생각한다.<sup>21)</sup> 예를 들어 개가 풀을 먹으면, 날씨가 나빠진다고 생각하고, 개가 눈을 먹으면, 눈을 녹이는 날씨가 온다고 생각하는 등의 많은 흥미 있는 것이 소개되어지는 것을 보면 개는 폰 프란츠의 말처럼 인간에게 가장 잘 적응되어지고 관찰되고 또한 인간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동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이 민담에서의 첫 번째 개를 살펴보면, 이 개는 주인공이 필요한 양식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하고 나중에는 공주에게서 음식과 포도주를 가져와 주인공과 공주의 관계의 끈을 연결시켜준다. 이 개를 분석 심리학적으로 이해해보면, 주인공의 의식에서의 양식이 고갈되어 새로운 양식이 필요할 때마다 주인공이 필요로 할 양식을 무의식의 세계에서 의식의 세계로 물어다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 민담의 후반부에 주인공과 공주를 연결시켜주는 즉 주인공의 아니마와의 관계를 맺게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무의식에서의 양식을 물어다 주어 의식을 확장시켜주고 무의식과 의식의 관계를 맺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20) 김종대(2001) : 《우리문화의 상징세계(33가지 동물로 본)》, 다른세상, pp13-14.

21) Hanns Bächtold-Stäubli(1987) : *Handwörterbuch des deutschen Aberglaubens*, de Gruyter, Berlin · New York, pp470-490.

알 수 있다. 앞으로 이 민담에서 이 개들이 주인공이 난관에 대처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주인공이 난관을 뚫고 나가고자 할 때는, 우선 주인공이 구체적인 도움을 인식하고 그에 맞는 ‘개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 때 그 개가 나타나 그 도움을 준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 3) 괴물과 희생제물이 될 공주와의 만남

이제 젊은이는 필요할 때면 언제나 자신에게 양식을 가져다주고, 충성스럽게 주인의 말을 따라 수행해 줄 용맹스러운 세 마리의 개를 데리고 의기양양하게 세상을 알기 위해 길을 가고 있다. 양을 끌고 가고 있던 젊은이의 모습과는 아마 대조적일 것이다. 첫 번째 개가 가져다주는 풍성한 양식을 먹으며 힘이 충만한 상태로 여행하고 있는 젊은이는 열심히 자신의 길을 가고 있던 중에 중요한 사건과 부딪히게 된다. 한 나라의 공주가 괴물의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 마차를 타고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마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은 끈질긴 추궁으로 마부로부터 14세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한 소녀를 괴물에게 희생을 시켜야 온 나라가 평온해 질 수 있다는 상황을 전해 듣게 된다. 주인공의 두 번째 과제가 주어진 것이다. 첫 번째 과제가 무의식으로부터 양식을 가져다주는 개를 통한 무의식과의 관계를 통해 충만한 힘을 갖게 된 것이라면, 주인공의 두 번째 과제는 한 나라의 평온을 위해 괴물의 희생양이 되어야 할 운명에 처한 공주를 구해야 하는 것이다. 검은 천을 쉬운 두 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에 검은 옷을 입은 공주를 끌고 가고 있는 마부는 주인공이 따라오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 그러나 주인공은 아름다운 공주에 대한 연민에 계속 따라가게 된다.

괴물은 매년 순수한 14살의 소녀를 희생 제물로 먹어치운다. 희생제물의 의식이 행해지지 않으면, 괴물은 온 나라를 망치게 하는 공포의 대상이다. 모든 것을 파괴하고 14세의 소녀를 잡아먹는 괴물의 모습과 그 괴물에게 공주를 데려다 주는 말과 마부를 분석심리학적으로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말은 매우 중요한 이동수단이며 전달자이기도 하다. 매우 날렵하고 신화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신비스런 동물이며 태양을 나타내기도 하고 한편 달의 상징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한다. 그리고 본능적인 동물성의 상징이

기도 하다. 샤머니즘에서는 말은 혼을 인도하는 자로, 이승에서 저승으로의 이행을 나타낸다는 상징적 의미로 본다. 공주를 태운 두 마리의 말의 마차와 마부가 지닌 전체적인 상징성도 여기서 생각하고 지나가야 할 부분으로 생각된다. 4位라는 전체성의 상징을 보이는 부분이기도 하다. 마부와 공주, 두 마리의 말. 이러한 4位가 나중에 왕, 누이, 주인공, 공주로의 변환으로의 연관성을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의미를 음미해 볼 만한 중요한 상징성을 지닌 것으로 생각된다. 괴물퇴치의 과정에서 주인공은 아직 이러한 4位의 밖에 머물고 있다. 귀한 신분의 공주나 왕자를 태우는 마차는 유럽 민담에서 많이 등장한다. 마부 또한 전달자의 역할을 맡고 있다. 말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괴물에게 공주를 전달하기 위해 함께 가는 자, 주인공이 공주에게 갖는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자, 그러다가 주인공의 괴물퇴치 후, 영웅의 자리를 탐내는 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반부 까자 영웅의 축출에서 다시 다루어 보기로 한다. 이제 주인공은 공주를 죽음으로부터 구출하기 위해 괴물을 죽여서 계속되는 소녀희생을 막아야 한다. 괴물의 소녀희생에 대해 분석 심리학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 괴물도 자기 속에 결핍된 창조적 생명을 무척이나 보충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이야기도 된다. 또한 이것이 괴물의 제치除治를 유도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한다, 무의식의 파괴적인 요소가 의식화 즉 자각되기 위해서는 융심리학에서 말하는 아니마Anima가 매개체의 역할을 하게 되는 수가 있다. 그러나 괴물은 그가 그리워하는 것을 자기의 것으로 충분히 소화시킬 수 없으므로 처녀희생은 계속되지 않을 수 없고 오직 과감한 제치除治로써만 극복 될 뿐이다.<sup>22)</sup> 그러므로 만약 아니마가 계속 부정적 어머니상인 괴물에 희생이 된다면, 겉으로는 나라가 평온해 보이겠지만 그 안에는 부정적 어머니상에 의한 순수한 소녀들의 집어삼켜짐은 계속 반복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모성적 측면의 부재, 즉 모성의 무의식성이 계속 소녀희생을 치르게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지는 조심스럽다. 이와는 좀 다른 구성을 가지고 있는 중국의 '구렁이를 퇴치한 소녀'의 경우를 보자. 이 '이기'라는 소녀 주인공은 부모가 있고, 6자매 중에 막내이다. 자신의 부모가 아들이 없음을 안타까워하며, 스스로 아들이 없는 부모님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직접 구렁이의 희생물이 되겠다

22) 이부영(2000) : 《한국민담의 심층분석》, 집문당, 서울, p104.

고 나선다. 그러나 무기력하게 아무런 대책 없이 그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모략을 가지고 구렁이와의 대적할 꿈을 꾸고 있다. 부모가 모두 존재하고 6자매 속에 자랐다는 것이 의식의 힘이 되어 무의식의 부정적 모성으로 대변될 수 있는 괴물퇴치에 일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여성 주인공이 괴물을 퇴치하는 경우는 구렁이를 부정적인 아니무스나 부정적인 부성콤플렉스의 극복으로 보아야 할지 의문이 들지만, 이는 주인공이 남자인 경우와는 다른 각도에서 해석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모성 콤플렉스의 극복, 괴물과 같은 부정적 모성적 측면으로 부터의 구원으로 보아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 흔히 민담에서 부정적인 어머니 이마고는 탐욕스럽게 집어삼키고 파괴하는 괴물로 나타난다. 이런 무의식 속의 파괴적인 모성적 측면을 퇴치하여 극복해야하는 것이 주인공이 개성과 과정에서 해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이고 바로 여기서 영웅이 탄생된다. 자신 안의 소중한 아니마를 구원하기 위해서 과연 괴물을 어떻게 퇴치해야 할 것인가는 각자에게 주어진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계속 희생양을 바치면서 고통을 견뎌내는 신경증환자로 머물러야만 하는가 아니면 영웅담에서처럼 그런 괴물과의 대치에서 그 괴물을 물리치고 아니마를 구원할 것인가는 각 개인의 선택이며 또한 난제로 남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민담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 안의 괴물을 의식화하여 그러한 면으로부터 조금은 깨어있을 수 있기를 바랄 뿐인 것 같다. 그러한 면을 인식시켜주고 다양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민담은 현대인의 사고에 매우 중요한 면을 일깨우고 각성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결코 소홀히 다루어져서는 안 될 것 같다.

이제 이 민담에서처럼 흔히 괴물로 대두되는 용Dragon의 복잡한 의미를 가진 보편적인 상징적 의미에 대해 알아보자. ‘날개달린 뱀’인 용은 뱀(물질)과 새(정신)가 결합된 합체이다. 원래 생명을 부여하는 바다(뱀)와 생명의 숨결(새), 둘 다의 현현으로 은혜 가득한 용은, 하늘의 신이나 지상의 그 대리인(결국 황제나 왕)과 동일시된다. 후에 용은 천둥을 동반한 풍작의 비로서, 동시에 번개와 홍수를 일으키는 파괴적인 힘으로서, 상반된 두 의미를 내포하게 된다. 용은 비의 신도 되지만, 비가 내리는 것을 방해하여 비의 신의 적이 되기도 한다. 괴물로서의 용은 지하 세계의 원래 주인으로서 ‘저승의 왕’이며, 지하세계를 지배하거나 점령하려고 하는 영웅, 정복자, 창조자는 용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된

다. 용은 또 보물의 수호자, 비밀의 지식의 문지기이다. 용과 싸우는 것은 영적 지식이라는 보물을 획득하기 위해서 극복해야하는 고난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용을 죽이는 것은 인간이 자기 내부의 어두운 본성을 극복하고 자기 통찰과 제어를 실현함을 뜻한다. 용의 위협으로부터 처녀를 구해서 데리고 나오는 것은 악령을 죽임으로써 순결한 힘을 해방시키는 것을 의미한다.<sup>23)</sup> 이러한 무의식의 어두운 면을 대변하는 용은 무의식의 부정적인 모성상이지만 이를 극복하면 이 용에게서 순결한 힘 즉 아니마를 구출하여 그 힘을 되찾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의식 자체가 어머니로 대변 될 수 있는 이 모성적 원형상인 어머니상과 소녀로 대변되는 아니마의 관계에 대해 용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 ‘어머니’란 실제로는 하나의 이마고Imago, 단지 정신적인 상이라는 사실이다. 이 어머니 이마고는 매우 다양하지만, 틀림없이 매우 중요한 무의식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 ‘어머니’는 아니마 원형이 처음으로 육화된 것이면서, 심지어 무의식 전체를 의인화하는 것이다<sup>24)</sup>라고 표현하면서 모태로의 퇴행과 그 속에서의 영웅의 역할을 이야기 하고 있다. 상징적인 모태로의 퇴행의 궁극적인 목표는 정신적인 혹은 상징적인 삶과 진보와 같은 가능성들이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영웅은 무의식의 어둠속에 숨겨진 귀중한 보물을 찾아 나오는 데 있을 어려움과 무수한 저항을 인지하고 극복하지만, 평범한 인간들은 퇴행으로 인해 단지 그리움에 스스로를 마비시키거나 죽이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여기서 아니마와 괴물과의 연관성을 심리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영웅들이 괴물퇴치를 통해 그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이제 괴물의 제물로 바쳐져야 하는 14세의 ‘소녀 희생’의 상징적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우선 ‘14’라는 숫자는 중요한 ‘달의 수’에 해당한다. 신월이 만월이 되기까지는 14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슬람교에서처럼 달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종교에서는 14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그리고 아름다운 연인의 이상적인 나이는 바로 열 네 살이었다. 흠잡을 데 없이 순수하고 깨끗한 소년의 얼굴은 보름달과 비교되곤 했다.<sup>25)</sup> 14세의 아름다운 공주가 희생제에 바

23) 진 쿠퍼(이윤기 역)(2003) : 그림으로 보는 세계문화상징사전, 까치출판사, 서울, pp110-113.

24) 칼 구스타브 융(한국융연구원 C.G. Jung 저작 번역위원회 역)(2006) : 융 기본저작집 8권 《영웅과 어머니 원형》, pp270-271.

쳐져야 하는 의미를 ‘한국 민담의 심층 분석’의 지네장터 설화에 나오는 소녀희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소녀란 심리학적으로 채 성숙하지 않았으나 성숙해 가는 과정에 있다는 점에서 그것이 완성이라기보다 완성을 향한 지향성을 뜻한다. 소년은 장래의 남성이 되려는 지향성이라면 소녀는 여인에의 지향성이라는 점에서 능동적, 지적 속성이기보다는 수용적이며 때로는 감정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지향성이다. 동시에 소녀는 남성의 마음에 숨어있는 감정적 순수성 혹은 소녀같이 어린 감정을 상징한다. 물론 소녀의 감정은 아직 미숙한 면도 가지고 있지만 유한한 지상의 것이 아닌 무한한 영원성에 시선을 보내고 이상에의 동경과 추구를 일삼으므로 인간정신의 초월적인 신적인 측면도 내포하고 있다.<sup>25)</sup> 이 민담에서 이러한 소녀 희생제의의 과정에서 공주와 괴물이 대면하는 순간, 주인공은 ‘갈기갈기 찢어라’라는 개를 불러 괴물을 죽이게 된다. 주인공이 어둠의 괴물을 물리치게 된 것이다. 주인공이 영웅이 되는 이 순간을 심리학적으로 의식의 무의식에 대한 승리로 표현하고 있다. 이에 공주는 너무나 기뻐 잠시 기절을 하지만 주인공이 공주를 흔들며 깨운다. 여기서 공주로 대변될 수 있는 ‘아니마’의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이 아니마란 무엇인가를 융을 말을 통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아니마는 심혼(Seele)을 일컬으며 어떤 경이로운 것, 불멸의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늘 그런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종류의 심혼이, 대단한 자발성과 생명력이 있는 무엇인가를 매료하고 사로잡을 도그마적인 관념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심혼의 동요와 현란함이 없다면 인간은 가장 큰 열정인 나태함 속에서 정지상태에 이르게 된다. -심혼을 갖는 것은 삶의 모험이다. 왜냐하면 심혼은 생명을 주는 데몬(귀령(鬼靈))이기 때문이다. -아니마는 그 말의 본래 의미를 볼 때 ‘요인’이다. 사람이 그것을 만들 수는 없으며, 선형적인 기분, 반응, 그리고 선형적인 충동이며, 그 밖의 무엇이든 정신적 자발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게 만드는 것, 스스로 살아있는 것이다. 즉 의식 뒤에 있는 삶으로서 남김없이 의식에 통합될 수 없는 것이며 오히려 그 반대로 그 삶에서 의식이 유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니마는 많은 원형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sup>26)</sup> 아니

25) 프란츠 칼 엔드레스, 안네마리 심멜(오석균 역)(1996) : 《수의 신비와 마법》, 고려원미디어, 서울, pp210-213.

26) 이부영(2000) : 《한국민담의 심층분석》, 집문당, 서울, pp102-103.

마의 이러한 요인이 결국 주인공에게 괴물과 대치할 용기와 힘을 가져다주고, 괴물퇴치로 인해 악적인 요인의 변환이 일어나는 계기가 됨을 이해할 수 있다. 괴물퇴치에 성공을 하여 공주를 살려낸 주인공은 이에 보답하려는 공주에게 3년 후에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다시 자신의 방랑의 길을 계속 간다.

#### 4) 가짜 구원자의 등장과 축출

진짜 영웅이 괴물퇴치에 합당한 보답을 나중에 미루고, 3년 후에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하며 세상의 더 많은 경험을 위해 다시 길을 떠났을 때, 공주를 다시 왕국으로 데려갈 마부는 자신이 영웅대접을 받기 위해 공주를 위협하여 자신이 괴물을 죽인 영웅임을 거짓으로 알리게 한다. 진짜가 자리를 비웠을 때 가짜가 진짜인 양 행동을 하고 뒤에 돌아 온 진짜가 가짜를 소탕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많은 민담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여기서도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민담의 심층분석에서 가짜와 진짜가 등장하는 ‘내가 누구냐’의 민담연구<sup>27)</sup>에서 가짜의 형성의 동기와 가짜를 물리치는 법에 대해 자세히 언급된 바가 있다. 이 부분을 이용해서 이를 분석심리학적 해석의 주관단계에서 보면, 주인공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뒤로 미루었던 일에 대해서 무의식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가짜의 인격, 무의식에 형성된 ‘그림자’ 또는 페르조나에 대응하는 내적인격이 생겨나고 이 부분이 의식에서는 억압되고 소홀히 되고 있기 때문에 무의식에서는 이러한 측면이 활성화되어 의식의 인격에 비길 수 있는 또 하나의 자율적 콤플렉스를 형성하여 주인공을 위협하는 존재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순수하게 자신의 것을 그대로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을 하지만 세상은 만만치 않다는 면을 제시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주인공의 이러한 면이 소홀함으로 인한 것인지 필연적인 면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러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공주는 결혼을 연기함으로써 3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게 된다. 진짜 구원자가 약속에 맞게 다시 나타날 것에 대한 믿음만이 남아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영웅은 약속대로 3년 후 공주를 다시 찾아왔지만 그 자리에는 이미 가짜가 자신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자신이 진짜라고 주장하지만 아무도 그를 영웅으로 믿으려

27) 칼 구스타브 융(한국융연구원 C.G. Jung 저작 번역위원회 역)(2002) : 융 기본저작집 2권 《원형과 무의식》, 솔출판사, 서울, pp135-137.

28) 이부영(2000) : 《한국민담의 심층분석》, 집문당, 서울, p65.

는 사람은 없다. 대신 강철로 된 감옥에 갇히게 되는 난감한 상황과 부딪히게 된다. 세 번째의 마지막 관문이다. 과연 이 감옥에서 주인공은 어떻게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비참한, 절망적인 상황을 부수고 나올 수 있는 해결방법은 무엇인가? 이 민담에서는 가장 힘이 센 개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을 떨쳐 일어나 가짜를 물리치려면 괴물을 죽이는 힘보다 더 강한 내부에서의 힘을 필요함을 일깨워 주는 부분으로 이해된다. 전에 인용된 용의 말 중에 가장 강한 열정이 나태함이라고 이야기 한 부분이 있었다. 이러한 나태함을 일깨울 수 있는 것이 아니마의 역할의 일부라고 한 말이 있듯이 이런 가장 강한 나태함의 열정을 깨어 부셔버릴 수 있는 것은 이 민담에서처럼 가장 크고 힘이 센 개로 상징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괴물보다 더 무서운 자신을 가두는 감옥에서의 탈출이 아니마와의 융합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것 같다. 주인공은 순간 번뜩하는 생각에 ‘강철을 부셔라’라는 개의 이름을 목이 터져라 불러 자신을 가둔 감옥을 부수게 만들고 드디어 다시 자유의 몸이 된다. 그리고는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음식을 가져와라’는 개를 부른다. 그러자 이미 그 개는 공주가 있는 곳으로 가서 공주가 주는 빵과 포도주를 가져오게 된다. 먹이를 가져다주는 개의 도움으로 다시 공주와의 연결이 이루어지고 왕실로 인도 된 주인공은 자신이 진짜 구원자임을 자신이 지닌 괴물의 이빨로 증명하게 된다. 이빨이 지닌 상징성은 공격과 방어의 상징이다. 이를 드러내는 것은 방비와 적의를 나타내는 것이며 중국에서 이는 싸움의 상징이다. 원시문화의 통과 의례에서는 이를 뽑아서 삼켜버렸는데 이는 육체 중의 가장 딱딱한 부분인 이를 죽음과 재생의 상징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한다.<sup>29)</sup> 이제 공주에게는 3년간의 영웅에 대한 기다림이 끝나고, 주인공은 강철 같은 용맹성으로 자신이 진짜 구원자임을 증명하고 공주와의 결혼을 맞이하게 된다.

##### 5) 행복한 결혼과 누이와의 재회, ‘세 마리 개’의 ‘새’로의 변환

결혼은 심리학적인 의미에서 신성한 대극의 합일을 의미한다. 이는 곧 의식의 확장을 가져올 뿐 아니라 앞으로의 많은 새로운 가능성을 내포하면서, 많은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낼 것이다. 이전 보다 발전된 단계에서의 또 다른 새로운

29) 진 쿠퍼(이윤기 역)(2003) : 그림으로 보는 세계문화상징사전, 까치출판사, 서울, p354.

시작이기도 하다. 한동안 이러한 행복한 결혼을 영유하던 젊은이는 갑자기 불쌍한 누이와 함께 행복을 같이 나누겠다고 오두막집에 있는 누이를 궁궐로 부르게 된다. 그래서 누이는 다시 젊은이에게로 오게 된다. 집이 보호의 상징이고 우주의 중심, 태모의 보호자적인 측면을 나타낸다고 보면, 그것이 이제 작은 집에서 커다란 궁궐로의 변이가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정신세계의 변화와 의식의 확장이라는 측면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누이의 재등장을 지켜보던 세 마리의 개 중 한 마리가 말을 하기 시작한다. 이제 자신들이 더 이상 주인공의 곁에 머무를 필요성이 없다고 말하며 세 마리의 개는 새들로 변환하여 하늘로 날아가 버린다.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의 이러한 상징의 변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우선 새가 상징하는 바는 초월, 혼, 영靈, 神의 현현顯現이며, 공기의 정령, 죽은 자의 영, 승천, 신과의 교류 그리고 의식의 고양상태에 이르는 능력을 뜻한다. 새는 영웅이 용을 죽이는 탐험 여행에 자주 동행하며 비밀의 충고를 해주고 영웅은 새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 새의 이러한 능력이 상징하는 것은 하늘과의 의사소통, 예를 들면 천사처럼 하늘에 사는 존재로부터 얻을 수 있는 도움이다. 샤머니즘에서 새는 천계상승, 강령술이나 주술 과정을 뜻한다. 샤만은 의례를 행할 때 새의 옷이나 깃털을 몸에 두른다, 또한 혼은 새의 모습을 하고 날아간다.<sup>30)</sup> 이러한 새의 상징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여기서의 개들의 새들로의 변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개와 새를 대극적 관계로 본다면, 여기서 개는 인간의 무의식의 본능적인 측면의 실현으로 인한 의식화로 어두운 지하세계나 지상세계를 극복하여 천상의 밝은 세계, 하늘과의 관계가 가지는 새들의 초월적 능력으로의 변환이 이루어졌음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용은 자아와 무의식의 관계에서 무의식의 대결의 다음 목표는 무의식적 내용이 무의식에 머무르지 않고 더 이상 간접적으로 아니마 아니무스 현상으로 표현되지 않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니마(그리고 아니무스)가 무의식에 대한 관계 기능이 되는 상태이다<sup>31)</sup>라고 했다. 이제 주인공의 정신은 개성화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한 새로워진 자아, 즉 영웅으로 재탄생으로 인해 왕과 공주와 누이와 같이 하

30) 진 쿠퍼(이윤기 역)(2003) : 앞의 책 pp33-36.

31) 칼 구스타브 융(한국융연구원 C.G. Jung 저작 번역위원회 역)(2004) : 융 기본저작집 3권 《인격과 전이》, 서울출판사, 서울, p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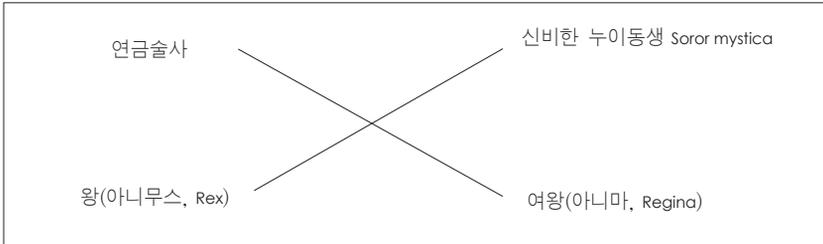


Fig. 1. 연금술의 4위(두개의 교차되는 남매 결혼).

게 됨을 보여 주고 있다. 앞에서 남매상은 신의 쌍으로 정신의 전체성의 한 표현이라는 한 바가 있다. 주인공의 아니마의 관계를 통해 성숙해진 모습이 곧 정신의 전체성의 표현이기도 한 남매와의 재회로 연결되어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지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왕국에는 왕, 주인공, 공주, 누이의 두 명의 여성과 두 명의 남성으로 4위가 갖추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주인공과 공주, 왕과 누이의 두 쌍의 남녀로 보면 결혼 四位Heiratsquaternion으로도 볼 수 있으나 이 민담에서 그러한 것을 제시하는 바는 없다. 융은 전이 심리학에서 두 개의 교차되는 남매 결혼으로서 연금술의 특이한 심리소의 최초의 본보기로 연금술사와 여왕(아니마, Regina)과의 결합과 그것에 상응하는 왕(아니무스, Rex)과 신비한 누이동생 Soror mystica과의 결합의 두 개의 교차되는 남매 결혼<sup>32)</sup>의 예를 조심스럽게 들고 있다(그림 1).

이러한 결혼의 체계를 심리학적인 면에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융이 아니마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 한 부분을 보면 좀 이해가 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그녀는 레이야드가 말하는 것처럼 ‘안에 있는 아니마’이다. 그녀는 타고난 신부新婦이며, 태초로부터 남성의 어머니-누이-딸-아내이다; 그녀는 어머니와 누이 모습을 하고 부질없이 족내혼적 성향에 도달하려고 회귀하는 저 동반녀이다. 그녀는 아득한 옛날부터 희생되어야 했던 그리움을 표현한다. 그러므로 레이야드가 ‘희생을 통한 내면화’를 이야기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sup>33)</sup> 이에 비추어 보면 아니마의 또 다른 육화된 모습으로의 괴물과 누이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영적 결혼은 오래 전부터 이미 넷으로 나누어진 만다라로 표현되며 나의 지금까지의 경험에 따르면 개성화 과정의 목표, 즉 자기

32) 칼 구스타브 융(한국융연구원 C.G. Jung 저작 번역위원회 역)(2004) : 앞의 책 p243.

33) 칼 구스타브 융(한국융연구원 C.G. Jung 저작 번역위원회 역)(2004) : 앞의 책 p246.

를 의미하는 것 같다<sup>34)</sup>고 융이 말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주인공과 왕, 공주와 오누이는 이런 영적 결혼을 대변한 것으로 이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이 민담에서는 더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심리학적으로 해석에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를 심리학적으로 주인공의 정신의 四位Quaternio, 정신의 전체성에 상응하는 의식의 변화로 본다면, 이는 정신의 전체성의 실현 즉, 자기Selbst실현에로의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민담해석의 과정에서 미흡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또 하나의 관점에서 민담을 이해하는 방법을 경험하게 된 것에 의미가 있음을 느끼며 독일 민담 “세 마리 개”의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의 해석을 마치고자 한다.

## 나가는 말

여기서 소개 된 민담은 세 마리의 개가 주인공을 돕는 양식으로 독특하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페르세우스 신화와는 달리 인간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개의 여러 면모를 가지고 우리가 가고 있는 개성화의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민담에서 개는 우리에게 양식을 제공하고, 괴물을 퇴치하고, 자신을 가두는 감옥을 부셔 자유로운 몸이 되게 하고 나중에는 새로 변환하여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세 마리 개라는 민담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개의 상징적인 의미를 구체화시켜 우리로 하여금 그 의미를 의식화하는데 도움이 되게 함을 알 수 있었다. 개는 마치 연금술에서의 메르쿠리우스 같은 전달자 매개자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본다. 마지막으로 주인공의 배려에 의한 누이의 재등장이 그동안 충직하고 용감하게 동행하던 개들을 자유로운 영혼과 같은 새들로 변환케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세 마리의 검은 개들이 새들로 변환하여 하늘로 날아가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인 부분이다.

그리고 이러한 영웅담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 수 있을까하는 생각을 해 본다. 민담에서의 영웅은 우리 모두의 원형으로 내재하고 괴물 또한 저 밖에 34) 칼 구스타브 융(한국융연구원 C.G. Jung 저작 번역위원회 역)(2004) : 앞의 책 p249.

있는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신에 엄연히 커다랗게 자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민담이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는 이유도 우리 모두가 항상 그러한 면과 대면하고 있음을 일깨워주려는 것이 아닌가 싶다. 융의 분석심리학의 도움으로 우리가 민담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됨이 매우 소중한 생각된다. 외부의 적이 아닌 자신 안에 있는 적, 자신 안의 괴물을 인식하고, 그것을 해결할 영웅도 각자의 마음 안에 있고, 해결해야 할 주체도 개인적 소임임을 융의 분석심리학이 말하고 강조하는 부분이 아닌가하는 생각이다. 그렇게 되면 융이 우려했던 세상의 많은 악의 문제가 변화를 일으킬 것 같기도 하다. ‘민담에 나타난 정신현상에 대하여’에서 융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 솔직히 말하자면 과거의 시대들에서는 심혼이 미쳐 자신의 마력을 떨쳐버리지 못하였으며, 인간은 자신의 과학적, 기술적 발전 덕분에 점점 더 사로잡힘의 위협에 노출된 것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sup>35)</sup> 그리고 현재의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 안의 괴물에게 그것이 원하는 더 과학적이고 더 기술적인 것을 계속 바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각자 개인 안에 그것을 극복할 영웅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 그 어려움의 해결도 결국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구의 환경 파괴나 전쟁은 결국 우리의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일방적인 것이 만들어 낸 결과물인 괴물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물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겸손해 질 수 있고, 우리가 경외심을 갖고 무의식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마다, 무의식은 항상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어 극복할 방법을 제시하리라 생각해 본다. 민담의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의 해석 연습은 민담이 우리 마음속의 진정한 도움의 손길을 일깨워 줄 수 있다는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하고 융의 분석심리학적 중요한 관점을 재인식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끝으로 폰 프란츠와 막스 루티의 민담에 대한 견해를 인용하면서 우리가 민담을 이해해야 하는 의미를 다시 한 번 음미해 보고자 한다.

우리에게 민담의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인간의 기본 general human basis을 묘사하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분석가가 지구의 다른 끝에서 온 사람을 분석하기를 원한다면 이 민담들이 특히 중요하다. -민담은

35) 칼 구스타브 융(한국융연구원 C.G. Jung 저작 번역위원회 역)(2002) : 융 기본저작집 2권 《원형과 무의식》, 서울, p334.

서로를 이해하는 언어이다. -민담은 문화와 인종을 초월하기 때문에 쉽게 이동한다. 민담의 언어는 모든 나이와 인종, 문화의 모든 인류의 국제 통용어 같다.<sup>36)</sup>

민담은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사물들의 조화를 이루는 세계를 그린다. 민담은 신뢰에서 흘러나오는데, 이 신뢰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듣는 이들에게 옮겨진다. 따라서 아이들만 민담의 매력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늘 다시금 민담이 지니는 힘이 증명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민담은 사람을 격려한다. 우리는 북독일의 한 민담 구연자가 보고했듯이 민담 이야기가 병원의 병자들에게 진정시키고 치유하는 힘을 줄 수 있다는 말을 기꺼이 믿는다. 모든 민담은 나름대로 용을 죽이는 영웅과 같다.<sup>37)</sup>

오늘날의 민담 연구자가 민담 하나하나에 경외심을 갖고 있다면, 날카로운 도구를 가지고 민담들을 탐구한들 해롭지 않다. 오히려 연구자가 채지 있게 연구하면 이야기의 원형인 민담에서 문학의 본질과 인간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변종들과 여러 판본들에서 인간의 다양한 보편적인 욕구와 관점들이 나타난다. 모든 민담에는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의미가 있으며, 다양한 관점에 따라 연구되고 해석될 수 있다. 동시에 민담들은 인간과 세계의 포괄적인 이미지를 조화롭게 그려낸다(용이나 그의 제자들처럼). 민담을 심리학 적, 인류학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와(이 책에서 시도한 것 같이) 민담의 본질과 특징을 파악하려는 시도는 서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한다. 각각의 민담에는 일회적인 가치와 매력이 있지만, 나아가 초개인적으로 통용되는 장르에 속하고 이 장르의 내적 필연성에 참여하는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이 민담은 우리 민중과 개인의 다양한 삶 한가운데로 이끌고, 동시에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불변성을 인식하게 만든다.<sup>38)</sup>

## 참고문헌

간보干寶(전병구역)(1997): 《수신기》, 자유문고, 서울

36) Marie-Luise von Franz(1996) : *The Interpretation of Fairy tales*, Shambhala, pp 27-28.

37) 막스 뤼티Max Lüthi(김경연역)(2008) : 《옛날 옛적에... 민담의 본질에 대하여》, 천둥거인출판사, 파주, p72.

38) 막스 뤼티Max Lüthi(김홍기 역)(2005) : 《유럽의 민담》, 보림출판사, 파주, p201.

- 김종대(2001) : 《우리문화의 상징세계(33가지 동물로 본)》, 다른세상, 서울
- 데. 체렌소드눔 D. Tserensodnom (이안나 역)(2007) : 《몽골의 설화》, 문학과 지성사, 서울
- 막스 뢰티 Max Lüthi(김경연 역)(2008) : 《옛날 옛적에... 민담의 본질에 대하여》, 천 등거인출판사, 파주
- 막스 뢰티 Max Lüthi(김홍기 역)(2005) : 《유럽의 민담》, 보림출판사, 파주
- 손진태(1954) : 《한국민족설화의 연구》, 을유문화사, 서울
- 이부영(2000) : 《한국민담의 심층분석》, 집문당, 서울
- 진 쿠퍼(이윤기 역)(2003) : 그림으로 보는 세계문화상징사전, 까치출판사, 서울
- 프란츠 칼 엔드레스, 안네마리 심멜(오석균 역)(1996) : 《수의 신비와 마법》, 고려원 미디어출판사, 서울
- 칼 구스타브 융(한국융연구원 C.G. Jung 저작 번역위원회 역)(2002) : 융 기본 저작집 2권 《원형과 무의식》, 솔출판사, 서울
- \_\_\_\_\_ (2004) : 융 기본 저작집 3권 《인격과 전이》, 솔출판사, 서울
- \_\_\_\_\_ (2006) : 융 기본 저작집 8권 《영웅과 어머니 원형》, 솔출판사, 서울
- Erich Neumann(1995) : *The Origins and History of Consciousness Bollingen Series XLII*, Princeton University Press
- Erich Neumann(2003) : *Die Grosse Mutter Die Weiblichen Gestaltung des Unterbewussteten*, Patmos, Düsseldorf
- Hanns Bächtold-Stäubli(1987) : *Handwörterbuch des deutschen Aberglaubens*, de Gruyter, Berlin · New York
- Knauer Verlag(2001) : *Das große Märchenbuch*, München
- Marie-Luise von Franz(1996) : *The Interpretation of Fairy tales*, Shambhala

## Shim-Sŏng Yŏn-Gu 2010, 25 : 2

&lt;ABSTRACT&gt;

**The Interpretation of German Fairy Tale “Three Dogs”  
from the Aspect of Analytical Psychology**

Kwang Ja Lee\*

I tried here to interpret german fairy tale “Three Dogs” from the aspect of analytical psychology. A poor young shepherd will be ‘hero’ accidentally while wandering the world to find good luck. When he was exhausted and frustrated in wandering life, a stranger appeared before him. A stranger offered barter. So he exchanged three sheep with three black dogs which a stranger had. One dog can bring the food. Another dog can tear everything. The last one can break even steel and iron. After that, shepherd led a satisfactory wandering life. On the way, he met a sad princess who should sacrifice herself for the piece of the country to the dragon which swallows a young girl yearly. But the strong black dog which tears everything, killed the dragon and saved the princess from the sacrifice. After that, a young shepherd promised princess to come back to her after three years of wandering life. In the meanwhile a horse driver played hero false. But the princess couldn’t reveal the truth because of the threat of horse driver. Three years later, the young shepherd appeared in the castle. But the true hero was caught in the prison and finally cried out the strongest dog and succeeded in escaping from the prison. And with help of another dog which bring food to him, he could meet the princess and finally married her. So they lived happy life for a long time. But he remembered the poor younger sister. So he wanted to live together with her. After that, three dogs left him with saying, they stayed to see whether he shares his good fortune with his younger sister. Then they turned into birds and disappeared in the air. In this fairy tale can we find many important symbols. With the amplification of symbols and the interpretation of this fairy tale in terms of Jung’s analytical psychology, I tried to find the meaning of individuation process in this fairy tale. Hero kills the dragon which could symbolize negative mother archetype. After overcoming the negative

---

mother complex, he could get princess which could be expressive of Anima. This marriage could symbolize coniunctio oppositorum, an important process in individuation. Each fairy tale tells us the individuation process in a different way. And the fairy tale works always in our mind with plain, simple, pure, crystal like nature. Through it can we take precious treasure like wisdom for life.

**KEY WORDS** : Fairy tale · Analytical psychology · Three dogs · Individuation process.

---

*\*Psychiatrist in Yangju Somang Mental Hospital, Yangju*